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홍 지 연**

본 연구는 음악대학생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음악전공분야별 전공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260부의 설문을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분석 결과, 환경적, 개별적 요인에서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 요인에서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모든 요인에서 전공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음악대학생,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 2. 조사도구 |
|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 4. 자료처리 |

III. 연구결과

1.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분석
2.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분석
3. 음악대학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 2015S1A5B5A07042503)

**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외래교수

I. 서론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진리탐구와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며, 아울러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시기이다(이화인, 2008, p. 97). 또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직업인을 배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대학에서의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로(정희영, 2010, p. 15),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정보연, 2010, p. 2).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이건남, 정철영, 2009, pp. 89-90)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적절한 동기에 의한 전공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공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학과 만족도로도 대변이 되는데, 하혜숙(2000)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하혜숙, 2000, p. 14). 그리고 가미정 외(2010)는 전공만족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습의욕도 높고,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높다고 하였다(가미정, 2010, p. 1).

이와 같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부분은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적응도와 전공선택 이유라 볼 수 있다. 박명지(2008)는 자신이 다니길 원했던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자연스럽게 학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면이 있으며, 학교와 해당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학업생활도 충실히 하게 되고 학교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p. 24). 특히, 음악대학 전공자들은 다른 일반대학 전공자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를 일찍 선택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설계가 빠르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이보현(2014)의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에서 피아노 전공자들의 진로는 개인레슨, 학원경영 그리고 대학원 진학으로 그 결정이 국한되어 있다(p. 2)고 하여 향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그 한계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3’에 의하면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61.3%인데 반해 음악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9.8%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강지혜, 2013, 뉴시스 2013. 12.30일자 기사), 음악 전공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어린나이부터 음악전공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노력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역량에 한계가 있음(심윤경, 2006, p. 1)을 알 수 있으며, 김춘미(199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음악대학은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중간한 음악 교양인을 배출해내고 있기(이가원, 2009 재인용, p. 90)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악기연주나 작곡 등 음악 실기를 연마하며 음악가를 희망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실제로 음악대학 학생들은 전공실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전공에 관한 전문성이 타 전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연주 위주의 교육에만 집중되어있어 음악전공생들이 다른 전공에 비해 다양한 진로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공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대생들이 보다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음악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오랜 시간 해당 진로를 선택해온 음악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문인오, 이경완(2010)은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진로결정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체제의 미흡, 교과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자신의 능력, 적성과 성격에 대한 자기이해와 탐색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인생설계를 세우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하는 진로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졸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결국 이직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p. 83). 이러한 이유로 진로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성숙정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조민제, 2010, p. 2)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미국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임두순(1992)은 자아의 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로 종합하여 정의하였다(심일보, 2008 재인용, pp. 13-14.). 즉,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유형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져 행복한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수민, 2013, p.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의 높은 고용불안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고 진로적성에 맞는 전공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못하다보니 진로성숙도도 부정적(문송이, 정은미, 2016, 대학내일 20대연구소)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과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기 제시한 전공선택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음악전공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음악 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 목표의식, 가치관에 대한 발달연구(심윤경, 2006),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 성숙도 조사(이보현, 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이승민, 장근주, 2014),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고라희, 2016) 등이 있다.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음악대학 전공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진로 성숙도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전공별 차이 규명 연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전공에서 전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음악대학 전공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심윤경(2006), 차혜운(2017)의 연구 이외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연구에서 하나의 전공에 국한되어 있고, 대상선정에 있어서의 일반화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을 건반악기, 관악, 현악, 성악, 작곡으로 구분하여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 진로성숙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선택동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음악대학 전공별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음악대학 학생으로, 서울,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음악전공분야별 전공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 4월-5월 중에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 후 배포 후 수거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그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을 제외한 260부의 설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218명으로 83.8%를 차지했으며, 학년은 4학년이 164명(63.1%), 3학년 42명(16.2%), 2학년 39명(15.0%), 1학년 15명(5.8%)의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은 20세-24세 이하가 155명(59.6%)로 가장 많았고, 전공으로는 현악기(101명, 38.8%), 건반악기(66명, 25.4%), 성악(39명, 15.0%)의 순으로 응답했다. 건반악기는 반주 및 피아노 전공생이었고, 현악기는 바이올린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첼로(36명), 비올라(14명)의 순이었다. 관악기는 플루트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곡전공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연주기간은 6년 이상-10년 이하가 91명(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1년 이상-15년 이하(57명, 21.9%), 1년-5년 이하(51명, 19.6%)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자	42	16.2
	여자	218	83.8
학년	1학년	15	5.8
	2학년	39	15.0
	3학년	42	16.2
	4학년	164	63.1

구 분			사 례 수(N)	백분율(%)	
연 령	20-24세 이하		155	59.6	
	25세 이상		105	40.4	
전 공	건반악기	피아노	66	66	25.4
		첼로	36		
	현악기	비올라	14	101	38.8
		바이올린	49		
		콘트라베이스	1		
		클래식기타	1		
		플루트	17		
	관악기	호른	2	27	10.4
		오보에	2		
		클라리넷	3		
		트럼펫	3		
		성악	39		
	작곡	27	27	10.4	
연주기간	1~5년 이하		51	19.6	
	6년 이상~10년 이하		91	35.0	
	11년 이상~15년 이하		57	21.9	
	16년 이상~20년 이하		28	10.8	
	20년 이상		33	12.7	
전 체			260	100	

2. 조사도구

음악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우선 전공선택동기 문항은 정보연(2010, pp. 19-20), 최상권(2012, pp. 29-30), 김현주(2013, p. 20), 한예정(2014, p. 9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사회적, 경험 및 환경, 학문의 전문성, 내부적, 외부적의 5개의 요인,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 문항은 미국 일리노이대학(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와 브라스캠프 와이즈 그리고 행스틀러(Braskemp, Wise & Hengstler, 1997)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조사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하혜숙(2000, pp. 28-30)의 조사도구와 장문영(2005, pp. 21-22), 김혜주(2007, pp. 25-26), 정희영(2010, pp.26-2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지를 수정, 보완하여 김혜진(2015, pp.37-40), 신선미(2011, pp.24-2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진로방향 및 안정성, 인식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진로조사의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 문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언, 정윤경, 상경아의 진로성숙도 개발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2010, p.14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 진로성숙도 검사지인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이해, 정보 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으로 구성된 것과 Crites(1978)이 개발한 Career Maturity Inventory의 태도 척도 가운데 상담용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한 진로성숙 검사지를 김설아(2012, pp. 22-24)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개요인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호기심 및 진로확정, 자기이해, 정보활용, 관여성, 목적성, 일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5문항, 전공동기 22문항, 전공만족도 40문항, 진로성숙도 3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공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전공선택동기	내부적 및 경험적, 환경적, 사회적 및 외부적, 개별적, 재능적	22
전공만족도	진로방향 및 안정성, 인식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진로조사	40
진로성숙도	호기심 및 진로확정, 자기이해, 정보활용, 관여성, 목적성, 일에 대한태도	33
인구통계학적 구성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악기연주기간	5
총 문항수		100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기위해 해당전공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구인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 4, 5>와 같이 나타났다. 고유값(eigenvalue)이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다음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얻었다. 요인적재량은 0.4이상인 것으로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약 67.6%, 전공만족도는 약 66%, 진로성숙도는 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과 표본적합도(Kaiser-Meeyer-Olkin)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Bartlett의 단위행렬의 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에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표준적합도 값도 .856, .939, .882로 검증되어 이 두 통계량 값으로 부터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전공선택동기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결여된 6문항을 제외한 22문항이 채택되었으며, 내부 및 경험적, 환경적, 사회적 및 외부적, 개별적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공만족도는 9문항이 결여되어 40문항이 채택되었으며, 진로방향 및 안정성, 인식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진로조사의 6개 요인으로, 진로성숙도는 13개 문항이 결여된 33문항이 채택되었으며, 호기심 및 진로확정, 자기이해, 정보활용, 관여성, 목적성, 일에대한 태도의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 4, 5>와 같이 나타났으며, 전공선택동기는 .624-.903, 전공만족도는 .632-.925, 진로성숙도는.743-.898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공선택동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내부적 및 경험적	환경적	사회적 및 외부적	개별적	재능적
내부적 및 경험적1	.827	-.033	-.041	.180	.071
내부적 및 경험적2	.818	.038	-.066	.262	.101
내부적 및 경험적3	.766	-.060	-.152	.220	.081
내부적 및 경험적4	.732	-.032	-.191	.281	.245
내부적 및 경험적5	.710	-.012	-.040	.280	.139
내부적 및 경험적6	.705	.023	-.056	.298	.042
내부적 및 경험적7	.699	.018	-.005	-.096	.016
내부적 및 경험적8	.696	.118	-.007	-.109	.138
환경적1	.013	.948	.052	-.058	-.017
환경적2	.072	.929	.106	.072	.069
환경적3	-.006	.917	.030	.131	-.005
환경적4	-.014	.792	.177	-.195	.087
사회적 및 외부적1	-.134	.088	.823	-.076	.084
사회적 및 외부적2	.009	.054	.821	.100	-.021
사회적 및 외부적3	-.207	.074	.748	.077	.057
사회적 및 외부적4	.013	.094	.737	.133	-.035
사회적 및 외부적5	-.106	.100	.521	-.502	.420
개별적1	.177	.038	.098	.721	.317
개별적2	.310	-.031	.155	.682	-.049
개별적3	.219	-.017	.064	.502	.257
재능적1	.302	.057	-.022	.126	.822
재능적2	.179	.048	.097	.204	.800
고유값	4.826	3.296	2.890	2.066	1.807
분산	21.937	14.983	13.137	9.390	8.215
누적분산	21.937	36.919	50.056	59.446	67.661
Cronbach's α	.903	.924	.804	.624	.759

Kaiser-Me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56

Barlett's Test of Sphericity = 3200.272, df=231, Sig = .000

<표 4> 전공만족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진로방향 및 안정성	인식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진로조사
진로방향 및 안정성1	.780	-.002	.150	.011	.034	.097
진로방향 및 안정성2	.751	-.031	.051	.235	.225	.186
진로방향 및 안정성3	.740	.249	.107	.155	.023	-.078
진로방향 및 안정성4	.702	.112	.164	.337	.015	.125
진로방향 및 안정성5	.692	.211	.134	.125	.236	.051
진로방향 및 안정성6	.643	.212	.172	.260	.077	.101
진로방향 및 안정성7	.628	.360	.091	.159	.179	-.018
진로방향 및 안정성8	.622	.334	.171	.293	.094	-.014
진로방향 및 안정성9	.618	.409	.197	.025	.223	-.069
진로방향 및 안정성10	.585	.397	.221	.142	.266	-.100
진로방향 및 안정성11	.571	.422	.118	.189	-.040	.200
인식만족1	.159	.773	.221	.071	.137	.064
인식만족2	.173	.758	.234	.203	.003	.182
인식만족3	.188	.755	.195	.111	.076	.028
인식만족4	.316	.695	.282	.249	.104	-.006
인식만족5	.162	.645	.002	.221	.217	.237
인식만족6	.206	.642	.165	.148	.460	.015
인식만족7	.273	.635	.030	.079	.216	.118
인식만족8	.182	.605	.302	.262	.246	-.021
인식만족9	.204	.544	.287	.159	-.014	.412
관계만족1	.121	.207	.818	.195	.103	.016
관계만족2	.169	.137	.778	.247	.134	.096
관계만족3	.139	.159	.777	.230	.058	.160
관계만족4	.075	.215	.743	.252	.150	.001
관계만족5	.185	.176	.724	.109	.089	.021
관계만족6	.252	.052	.706	.304	.142	.120
관계만족7	.108	.315	.544	-.107	.326	.091
교과만족1	.303	.136	.077	.731	.141	.159
교과만족2	.176	.190	.312	.684	.233	.033
교과만족3	.328	.194	.196	.682	.245	.143
교과만족4	.117	.088	.336	.659	.248	-.071
교과만족5	.295	.257	.294	.648	-.040	.059
교과만족6	.236	.346	.377	.604	.029	-.118
수업만족1	.141	.188	.275	.357	.585	.160
수업만족2	.302	.241	.306	.412	.571	.028
수업만족3	.222	.241	.424	.160	.549	.000
수업만족4	.339	.247	.251	.383	.532	-.055
수업만족5	.494	.312	.142	.166	.496	.070
진로조사1	.079	.156	.094	.044	.131	.815
진로조사2	.138	.520	.223	.064	-.127	.613
고유값	6.452	6.188	5.395	4.255	2.600	1.615
분산	16.130	15.469	13.488	10.638	6.499	4.037
누적분산	16.130	31.599	45.087	55.725	62.224	66.261
Cronbach's α	.925	.917	.911	.894	.863	.632

Kaiser-Me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939

Barlett's Test of Sphericity = 7513.481, df=780, Sig = .000

<표 5> 진로성숙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호기심 및 진로확정	자기이해	정보활용	관여성	목적성	일에 대한 태도
호기심 및 진로확정1	.815	-.142	-.087	.083	.246	.162
호기심 및 진로확정2	.781	-.195	-.120	.136	.183	.118
호기심 및 진로확정3	.781	.106	-.095	-.059	.181	.091
호기심 및 진로확정4	.771	-.134	-.055	.126	.160	.288
호기심 및 진로확정5	.683	-.291	-.099	.265	.307	.167
호기심 및 진로확정6	.677	.080	-.105	-.025	.142	.336
호기심 및 진로확정7	.613	.050	.105	.112	-.138	-.038
호기심 및 진로확정8	.526	-.148	-.046	.041	.112	.392
자기이해1	-.070	.781	.191	-.021	-.085	-.129
자기이해2	-.079	.780	.161	-.204	-.097	.069
자기이해3	-.130	.771	.201	-.050	-.116	-.136
자기이해4	-.202	.732	.205	.010	.014	-.200
자기이해5	.094	.712	.032	-.142	-.091	.168
자기이해6	.025	.694	.152	-.142	-.246	-.004
자기이해7	-.301	.544	.333	.028	-.006	-.218
정보활용1	-.036	.189	.712	-.133	-.097	-.009
정보활용2	-.158	.331	.702	-.175	.046	-.035
정보활용3	.072	.307	.700	-.064	-.019	.031
정보활용4	-.069	-.279	.641	.224	.151	.204
정보활용5	-.228	.329	.635	-.026	-.014	-.114
정보활용6	.016	.475	.623	-.023	-.100	-.166
관여성1	-.177	-.045	-.040	.789	.159	.075
관여성2	.188	-.157	-.127	.762	.227	.147
관여성3	.255	-.191	-.073	.693	.188	.054
관여성4	.390	-.200	-.116	.584	.157	.085
관여성5	.104	.374	.246	.460	-.238	.166
목적성1	.187	-.166	-.001	.199	.771	.023
목적성2	.268	-.219	.047	.211	.757	.134
목적성3	.234	-.106	.060	.149	.712	.090
목적성4	.074	-.023	-.148	.038	.558	.356
일에 대한태도1	.253	-.192	.120	.146	.130	.772
일에 대한태도2	.275	-.176	.016	.135	.169	.746
일에 대한태도3	.245	.153	-.104	.102	.094	.632
고유값	4.977	4.910	3.189	2.713	2.677	2.436
분산	15.081	14.878	9.663	8.222	8.113	7.382
누적분산	15.081	29.959	39.622	47.845	55.958	63.340
Cronbach's α	.898	.883	.760	.748	.778	.743

Kaiser-Me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82

Barlett's Test of Sphericity = 4850.079, df=528, Sig = .000

4. 자료처리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부호화(coding)한 후 SPSS PC+ 22.0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전공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음악대학생의 전공별 전공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 검증 결과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내부 및 경험적 요인은 작곡(4.33 ± 0.513), 성악(4.22 ± 0.761), 현악기(4.16 ± 0.616)의 순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요인은 관악기(3.05 ± 1.373), 현악기(2.99 ± 1.233), 건반악기(2.40 ± 1.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및 사회적 요인은 현악기(2.54 ± 0.747), 성악(2.46 ± 0.840), 관악기(2.40 ± 0.933)의 순으로, 개별적 요인은 작곡(3.88 ± 0.699), 성악(3.74 ± 0.838), 관악기(3.56 ± 0.7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능적 요인은 성악(3.77 ± 0.826), 작곡(3.72 ± 1.068), 현악기(3.68 ± 0.7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공별 전공선택 동기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내부 및 경험적	건반악기	66	4.03	0.705	0.087
	현악기	101	4.16	0.616	0.061
	관악기	27	4.06	0.509	0.098
	성악	39	4.22	0.761	0.122
	작곡	27	4.33	0.513	0.099
	합계	260	4.14	0.646	0.040
환경적	건반악기	66	2.40	1.366	0.168
	현악기	101	2.99	1.233	0.123
	관악기	27	3.05	1.373	0.264
	성악	39	2.12	1.366	0.219
	작곡	27	1.76	1.206	0.232
	합계	260	2.59	1.365	0.085
외부적 및 사회적	건반악기	66	2.30	0.900	0.111
	현악기	101	2.54	0.747	0.074
	관악기	27	2.40	0.933	0.180
	성악	39	2.46	0.840	0.135
	작곡	27	2.20	0.877	0.169
	합계	260	2.42	0.838	0.052
개별적	건반악기	66	3.48	0.749	0.092
	현악기	101	3.39	0.674	0.067
	관악기	27	3.56	0.795	0.153
	성악	39	3.74	0.838	0.134
	작곡	27	3.88	0.699	0.135
	합계	260	3.53	0.747	0.046
재능적	건반악기	66	3.62	0.804	0.099
	현악기	101	3.68	0.713	0.071
	관악기	27	3.48	0.826	0.159
	성악	39	3.77	0.826	0.132
	작곡	27	3.72	1.068	0.206
	합계	260	3.66	0.805	0.050

한편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분석 결과 내부 및 경험적, 환경적, 외부적 및 사회적, 개별적 요인, 재능적 요인 중에서 환경적, 개별적 요인 두 요인에서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사후검증 결과 전공선택

동기 중 환경적 요인은 작곡집단과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고, 성악집단은 현악기, 관악기 집단과 차이가 있었으며, 건반악기 집단은 현악기, 관악기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요인은 건반악기, 현악기 집단과 작곡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차이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유의확률	post-hoc
내부 및 경험적	집단-간	2.141	4	.535		
	집단-내	105.857	255	.415	.275	1 3 2 4 5
	합계	107.998	259			
환경적	집단-간	51.411	4	12.853		
	집단-내	431.036	255	1.690	.000	5 4 1 2 3
	합계	482.447	259			
외부적 및 사회적	집단-간	3.850	4	.963		
	집단-내	177.915	255	.698	.241	5 1 3 4 2
	합계	181.766	259			
개별적	집단-간	6.966	4	1.742		
	집단-내	137.745	255	.540	.013	2 1 3 4 5
	합계	144.711	259			
재능적	집단-간	1.563	4	.391		
	집단-내	166.153	255	.652	.663	3 1 2 5 4
	합계	167.715	259			

p<0.05, 1: 건반악기, 2: 현악기, 3: 관악기, 4: 성악, 5: 작곡

2. 음악대학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전공별 전공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진로방향 및 안정성 요인은 성악(3.31±0.907), 건반악기(3.13±0.751), 관악기(3.01±0.844) 순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 요인은 작곡(3.98±0.604), 건반악기(3.89±0.662), 성악(3.86±0.662)의 순으로, 관계만족 요인은 성악(3.78±0.786), 건반악기(3.47±0.731), 작곡(3.43±0.5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만족 요인은 성악(3.51±0.869), 건반악기(3.40±0.679), 관악기(3.30±0.7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 요인은 성악(3.54±0.806), 건반악기(3.43±0.639), 작곡(3.23±0.578)의 순으로, 진로조사 요인은 건반악기(3.67±0.843), 작곡(3.67±0.820), 현악기(3.57±0.9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전공별 전공만족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진로방향 및 안정성	건반악기	66	3.13	0.751	0.092
	현악기	101	2.98	0.717	0.071
	관악기	27	3.01	0.844	0.162
	성악	39	3.31	0.907	0.145
	작곡	27	2.98	0.799	0.154
	합계	260	3.07	0.781	0.048
인식만족	건반악기	66	3.89	0.662	0.081
	현악기	101	3.66	0.691	0.069
	관악기	27	3.57	0.641	0.123
	성악	39	3.86	0.849	0.136
	작곡	27	3.98	0.604	0.116
	합계	260	3.77	0.704	0.044
관계만족	건반악기	66	3.47	0.731	0.090
	현악기	101	3.30	0.823	0.082
	관악기	27	3.14	0.810	0.156
	성악	39	3.78	0.786	0.126
	작곡	27	3.43	0.588	0.113
	합계	260	3.41	0.788	0.049
교과만족	건반악기	66	3.40	0.679	0.084
	현악기	101	3.18	0.700	0.070
	관악기	27	3.30	0.760	0.146
	성악	39	3.51	0.869	0.139
	작곡	27	3.10	0.728	0.140
	합계	260	3.29	0.739	0.046
수업만족	건반악기	66	3.43	0.639	0.079
	현악기	101	3.03	0.699	0.070
	관악기	27	3.10	0.745	0.143
	성악	39	3.54	0.806	0.129
	작곡	27	3.23	0.578	0.111
	합계	260	3.24	0.719	0.045
진로조사	건반악기	66	3.67	0.843	0.104
	현악기	101	3.57	0.927	0.092
	관악기	27	3.37	1.062	0.204
	성악	39	3.36	1.032	0.165
	작곡	27	3.67	0.820	0.158
	합계	260	3.55	0.928	0.058

한편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진로방향 및 안정성, 인식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진로조사 요인 중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 요인에서 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사후검증 결과 인식만족 요인은 관악기집단과 작곡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관계만족 요인은 관악기와 성악 집단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 요인

은 작곡 집단을 제외한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성악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공별 전공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유의확률	post-hoc
진로방향 및 안정성	집단-간	3.578	4	.894		
	집단-내	154.437	255	.606	.210	5 2 3 1 4
	합계	158.015	259			
인식만족	집단-간	4.771	4	1.193		
	집단-내	123.738	255	.485	.046	3 2 4 1 5
	합계	128.509	259			
관계만족	집단-간	8.803	4	2.201		
	집단-내	151.926	255	.596	.006	3 2 5 1 4
	합계	160.730	259			
교과만족	집단-간	4.720	4	1.180		
	집단-내	136.551	255	.535	.069	5 2 3 1 4
	합계	141.270	259			
수업만족	집단-간	10.866	4	2.716		
	집단-내	123.174	255	.483	.000	2 3 5 1 4
	합계	134.040	259			
진로조사	집단-간	3.597	4	.899		
	집단-내	219.452	255	.861	.385	4 2 3 1 5
	합계	223.049	259			

p<0.05, 1: 건반악기, 2: 현악기, 3: 관악기, 4: 성악, 5: 작곡

3. 음악대학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결과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전공별 진로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호기심 및 진로확정 요인은 관악기(2.80 ± 0.861), 건반악기(2.76 ± 0.797), 작곡(2.70 ± 0.973)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이해 요인은 작곡(4.75 ± 0.664), 건반악기(4.60 ± 0.683), 관악기(4.60 ± 0.768)의 순으로, 정보 활용 요인은 관악기(3.50 ± 0.686), 성악(3.47 ± 0.817), 작곡(3.45 ± 0.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여성 요인은 건반악기(2.51 ± 0.740), 성악(2.48 ± 0.726), 현악기(2.46 ± 0.6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성 요인은 관악기(2.53 ± 0.856), 성악(2.37 ± 0.965), 건반악기

(2.34 ± 0.848), 현악기(2.34 ± 0.705)의 순으로, 일에 대한 태도 요인은 관악기(3.09 ± 1.011), 성악(2.91 ± 0.942), 현악기(2.83 ± 0.787), 작곡(2.83 ± 0.9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모든 요인에서 전공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참조).

<표 10> 전공별 진로성숙도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호기심 및 진로확정	건반악기	66	2.76	0.797	0.098
	현악기	101	2.67	0.779	0.078
	관악기	27	2.80	0.861	0.166
	성악	39	2.59	0.778	0.125
	작곡	27	2.70	0.973	0.187
	합계	260	2.70	0.810	0.050
자기이해	건반악기	66	4.60	0.683	0.084
	현악기	101	4.50	0.695	0.069
	관악기	27	4.60	0.768	0.148
	성악	39	4.47	0.917	0.147
	작곡	27	4.75	0.664	0.128
	합계	260	4.56	0.733	0.045
정보활용	건반악기	66	3.42	0.687	0.085
	현악기	101	3.34	0.579	0.058
	관악기	27	3.50	0.686	0.132
	성악	39	3.47	0.817	0.131
	작곡	27	3.45	0.550	0.106
	합계	260	3.41	0.654	0.041
관여성	건반악기	66	2.51	0.740	0.091
	현악기	101	2.46	0.632	0.063
	관악기	27	2.33	0.794	0.153
	성악	39	2.48	0.726	0.116
	작곡	27	2.39	0.776	0.149
	합계	260	2.45	0.704	0.044
목적성	건반악기	66	2.34	0.848	0.104
	현악기	101	2.34	0.705	0.070
	관악기	27	2.53	0.856	0.165
	성악	39	2.37	0.965	0.154
	작곡	27	2.08	0.841	0.162
	합계	260	2.34	0.815	0.051
일에 대한 태도	건반악기	66	2.80	0.791	0.097
	현악기	101	2.83	0.787	0.078
	관악기	27	3.09	1.011	0.195
	성악	39	2.91	0.942	0.151
	작곡	27	2.83	0.953	0.184
	합계	260	2.86	0.853	0.053

<표 11>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유의확률	post-hoc
호기심 및 진로 확정	집단-간	1.004	4	.251		
	집단-내	168.860	255	.662	.823	4 2 5 1 3
	합계	169.864	259			
자기 이해	집단-간	1.768	4	.442		
	집단-내	137.340	255	.539	.513	4 2 1 3 5
	합계	139.108	259			
정보 활용	집단-간	.945	4	.236		
	집단-내	109.725	255	.430	.700	2 1 5 4 3
	합계	110.670	259			
관여성	집단-간	.743	4	.186		
	집단-내	127.685	255	.501	.829	3 5 2 4 1
	합계	128.428	259			
목적성	집단-간	2.753	4	.688		
	집단-내	169.175	255	.663	.388	5 2 1 4 3
	합계	171.928	259			
일에 대한 태도	집단-간	1.844	4	.461		
	집단-내	186.505	255	.731	.641	1 5 2 4 3
	합계	188.349	259			

p<0.05, 1: 건반악기, 2: 현악기, 3: 관악기, 4: 성악, 5: 작곡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대학생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하여, 올바른 전공선택 및 장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직업선택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공별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를 살펴보면, 음대생 전반에 걸쳐 내부 및 경험적 요인과 재능적 요인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외부적 및 사회적인 요인이 전공선택동기에 있어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주를 전공하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 선택 요인을 밝힌 팩스와 존(Parkes & Jones, 2011)의 연구를 정환호, 최진호(2013)가 전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가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p. 165)이라고 요약 정리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전공은 다르지만, 김수영(2007)의 연구에서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들이 전공선택동기에 있어서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답변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p. 31)와 전해자(1997)의 연구에서 체육학부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는 결과(p. 4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를 전공별로 차이분석 한 결과 여러 요인들 중 환경적, 개별적 요인에서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연(2010)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개개인이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인기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계열이므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p. 29)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음악 전공의 특성상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작곡한 음악을 발표한 후 자신 스스로의 만족감만큼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청중의 반응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른 인기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개개인의 특별한 소질인 개인적 요인과 사람들의 반응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는 환경적 요인이 전공선택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 연구 결과, 전공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특히,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집단이 성악, 작곡 집단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악기 시작시기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혜윤(2017)의 연구에서 피아노 전공자들이 가장 먼저 전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곡과 성악 전공자는 비교적 전공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p. 35), 다시 말해 관악, 현악, 그리고 건반악기의 경우, 관절이나 근육이 유연하여 연주기술의 습득이 빠른 미취학,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해당 악기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진로정보망 커리어넷, 2018) 성악의 경우 변성기가 지나서 전공 레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작곡의 경우도 처음부터 작곡 전공을 택한다기보다는 여러 악기교육과 음악이론의 습득을 통해 작곡의 기초가 되는 음악 전반의 지식을 쌓은 후 차차 전공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관악, 현악, 건반악기 전공 학생들은 더 어린 나이에 전공을 선택하여 예술 중학교, 예술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은 전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성숙한 판단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의 전공선택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가족 중 음악 전공자가 있거나, 음악을 접하기 쉬운 가정환경, 경제적 여유 등의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인식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의 방향성 및 안정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높으나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혜윤(2017)의 연구에서 음악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관심, 흥미, 애정이 있으며, 음악을 전공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연관시켰을 때 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p. 60)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조사 요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음을 알면서도 졸업 후 같은 전공의 대학원을 택한다든지, 전공분야의 직업을 찾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전공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건반악기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 진로조사 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는데, 이는 최진호, 정완규(2009)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분석과 진로조사’의 결과에서 대부분의 피아노 전공자들의 예상 진로가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 대학원 진학, 전문 반주자 등으로 나타났고(pp. 238-239),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을 답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전공에 비해 현실적으로 실제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전공별 전공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 요인에서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은 다르지만, 대학생들 전체를 아울러서 분석한 이진희(2009)의 연구에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계열에 따라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학과전체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pp. 23-24)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악과 건반악기 집단이 거의 모든 요인들에서 가장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악집단은 하위 요인들 중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보여진 관계만족 요인에서도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성악전공자들이 높은 전공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전경희(1980, p. 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관악기 집단은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에서 모두 낮은 평균을 나타냈는데 이는 관악기 전공 학생들이 전공 교육과정에 대해 불만족 비율이 높고 졸업 후 희망진로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이보아라(2012, p. 2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학생간의 원활한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대학의 전공실기 수업은 교수와 학생 1대1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학과의 학생들보다 전공만족도에 있어 관계만족도,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전공 교, 강사는 획일화된 형식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콩쿨이나 오디션, 실기시험 등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칫 음악의 본질과 자신의 전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동시에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전문성 있는 수업을 통하여 졸업 후의 진로준비를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요인에서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관악기 집단의 지도자들은 관악기 전공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셋째,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 중 자기 이해가 월등히 높은 평균을, 관여성과 목적성이 낮은 평균을 보였으나 모든 하위요인에서 전공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애(2007)의 계열별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에서 계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 90)는 결과와 음악대학 관현악, 피아노, 성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라희(2016)의 연구에서 결정성, 참여성, 독립성, 목적성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 목적성요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결과(pp. 31-34)가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학생의 계열별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전체진로성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 이진희(2009, p. 2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공선택동기나 전공만족도의 전공별 차이와 상관없이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내실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악대학생 대부분은 연주가의 꿈을 가지고 음악대학에 입학하지만, 모두가 연주가의 길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공을 살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직업 선택의 폭이 좁으나 그 이외의 진로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진로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음악대학 학생들은 오랜 시간동안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므로 대학 입학 후 자신이 더 이상 음악전공과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다른 길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연주가나 음악 교육자에 뜻이 있어 대학 졸

업이후 국내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길에 오르더라도, 공부를 마친 후에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도교수에게는 학생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적성, 앞으로의 가능성과 더불어 학생의 희망진로, 직업관,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진로상담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음악대학 커리큘럼의 변화가 요구된다. 연주자 이외의 음악관련 직업으로는 음악치료사, 음악학자, 음악평론가, 공연기획자, 레코딩 엔지니어, 악기제작자 등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연주자 양성만을 목표로 짜여진 음악대학의 커리큘럼 하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이 변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바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달리, 오랜 시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악대학은 연주자 이외의 음악관련 직종으로의 진로결정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확장된 범위의 수업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연구과정상의 문제점과 도출된 개별 결과들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내용들을 제언해보면, 우선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 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재학생들에게는 졸업후 진로에 대한 고심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악대학 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서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선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대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은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다양한 면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보다 많은 음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도 전공별 차이 뿐만 아니라 학년별, 연령별, 성별차이 등 대상 선정의 세분화를 통한 연구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가미정, 김수미, 김영경, 남수진, 오루미, 육지수, 이혜인, 최미나, 최혜민, 허다은 (2010). 간호사의 이미지에 따른 전공만족도. **이화간호학회지**, 44, 1-15.
- 강지혜 (2013). 올해 서울대 순수취업률 61.3%..간호대 가장 낮아. 뉴시스 2013. 12. 30일자 뉴스. <http://v.media.daum.net/v/20131230152907889>
- 고라희 (2016).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설아 (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영 (2007).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현주 (2013). 모델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교육과정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김혜주 (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진(2015).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김춘미 (1997). 21세기 부산 대학음악교육의 전망/ 음악교육 개혁의 진행과정과 우리의 과제. **음악과 민족**, 13, 14-34.
- 문송이, 정은미 (2016). **2016 전국 대학생 취업준비 실태조사**. 대학내일 20대연구소
-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명지 (2008).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가 진로성숙도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수민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선미 (2011). 고등학교'정치'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학과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의 연구: 인천지역 정치외교학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윤경 (2006). 음악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 목표의식, 가치관에 대한 발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심일보 (2008). 대학생의 타성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이가원 (2009). 취업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연구: 바이올린 연주 전공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31, 89-117
- 이건남, 정철영 (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87-110.
- 이명애 (2007). 학부제에서의 전공선택 및 전공결정 과정 탐색. **교육평가연구**, 20(3), 81-101.
- 이보아라 (2012) 관현악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공 교육과정 비교: 서울소재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현 (2014).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민, 장근주 (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2(3), 47-65
- 이진희 (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인 (2008).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97-107.
- 임두순 (1992). **진로성숙도 검사의 활용방안**. 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개발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문영 (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경희 (1980). 한국성악도들의 학습과정 및 의욕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혜자 (1997). 체육 학부생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술연구집**, 6, 27-46.
- 정보연 (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정환호, 최진호 (2013).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161-183.
- 정희영 (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진로정보망커리어넷 (2018). 진로인터뷰. 교육부. 접속일 02.10.2018.
https://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Interview_new/jobSpecialView_new.do?jsessionid=Fg3fHkmnVPy6ZKbDNqLsmEXIjh5VdF_8IwtveDN-.cnet12?INTV_SEQ=147
- 차혜윤 (2017).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상권 (2012). 경호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전문대, 대학생 졸업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통계연구센터 (2012). **2012년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한국통계연구센터.
- 한예정 (2014).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 조리·외식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Braske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94-498.
- Critic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cGraw-Hill
- Parkes, K. A., & Jones, B. D. (2011). Students' motivations for considering a career in music performanc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9(2), 20-28.

ABSTRACT

**A Study of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Hong, Jee-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n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Daejeon City were selected as unit of analysis from population of music majors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then a total of 260 respondent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equency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ne way ANOVA, and Duncan post hoc test were conducted. The findings showed as follows. First,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on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was analyzed, and differences among majors on both the Circumstance factor and individual factor we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was analyzed, and differences among majors on recognition satisfaction factor, relationship satisfaction factor we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lthough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o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 was analyzed, differences on all factors among majors wer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Key words: music college student,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0일), 게재확정일: 4월 25일